

# 靑일자리수석임서정 등 차관급 12명 인사

### 박진규 산업 1차관 · 윤성원 국토 1차관 등 내정

### 靑 “공직사회 내부 쇄신 · 하반기 국정운영 안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 차관에 대한 인사를 포함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내정했다.

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차관에는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는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도규상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을 발탁했다.

이날 발표된 차관급 12명은 오는 2일 임명될 예정이다.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내정자는 행시 32회로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장을 지낸 뒤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차관을 역임했다.

김강립 식약처장 내정자는 행시 33회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 의료정책실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제1차관을 지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 내정자는 행시 34회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과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내정자는 행시 35회로 복지부 연금정책과장과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 내정자는 행시 34회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을 지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내정자는 행시 34회로 국토부 도시정책과장과 국토정책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정우 조달청장 내정자는 행시 40회로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을 거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낸 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신열우 소방청장 내정자는 소방장 경제 출신으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 구조구급국장과 소방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위 왼쪽부터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내정된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내정된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내정된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내정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아래 왼쪽부터 조달청장에 내정된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내정된 신열우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내정된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내정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내정된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사진=청와대 제공)

소방정책국장을 거쳐 소방청 차장,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을 지냈다.

박광석 기상청장 내정자는 행시 35회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자연환경정책실장을 지낸 뒤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환경부 환경정책관으로 일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34회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and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내정자는 행시 31회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실장과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냈다.

민병찬 문화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내정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과 연구기획부장,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경주박물관장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 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하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정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美 대선 결과 다각도 대비

### 바이든 당선 유력하지만 트럼프 재선도 배제 못해

오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한미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물론 현 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차관 주재로 미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미 대선 동향과 대선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 사항을 점검해 왔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및 주요 정책이 한미 관계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미국 지역 재외공관별로는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와 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 사항을 검토·협의해 왔다. 현지 대사관 외교관들은 초경합 지역인 플로리다를 비롯해 주요 경합지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 접촉 및 설득) 활동도 벌였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여론조사와 달리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적잖이 당황했던 경험을 반추하며 대선 동향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달리 트럼프 진영에 대한 정보와 인맥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던 배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에 2016년 대선 여론조사 예측 실패 원인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올해 여론조사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선거인단 확보 예상 시나리오와 경합주 동향, 주별 개표 예상 시점, 대선 결과 발표 시점 등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단위 지지율은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여론조사와 베팅업체 승률 모두 바이든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다만 경합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현장 투표의 사를 밝힌 유권자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를 선불리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대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접전지인 플로리다에서 패배하거나 두 후보간 격차가 근소할 경우 바이든의 대선 승리 조기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패 결정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근소한 득표 차로 인한 재검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에 대한 강한 의의 제기 등 여러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

## ‘잠룡’ 원희룡, 홍준표 저격 “지금 적서논쟁 벌일 형편 아냐”

### 김종인 홍준표에 “비대위 흔들 때 아냐”

차기 대권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주장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퇴진론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적서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이다. 비대위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 전 대표는 본인이 우리 당

의 ‘적장자’라며 ‘서자’인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며 “홍준표다운 비판”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변화와 혁신은 족보와 구력에 바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겔라 메르켈이 독일 보수의 적장자였다?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보수의 적장자였다? 세종대왕도 셋째 아들이었다. 그런 것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전 대표 말대로 보수 우파

가 못지면 집권할 수 있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냐?”라며 “중도는 그저 힘있는 데 붙는 사람들이다, 저들의 갈라치기에 우리도 갈라치기로 맞서자는 건 가치의 면에서나 전략의 면에서나 다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보수란 말은 쓰지도 말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문엔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왜 우리 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냐? 우리의 잘못으로 계속졌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패배의 그림자를 지우는 중

이다.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비대위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는 일만 하면 된다. 그 길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와 원희룡이 할 일”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홍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권에 맞서 보여준 투쟁과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우리 당의 큰 어른”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할 자격도 충분하다. 홍 전 대표는 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복당을 찬성했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